

2023년 봄 학기  
전 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  
바울의 서신서들 안에 있는 중점들

메시지 2

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

성경: 롬 1:16-17, 3:24, 마 5:20, 6:33, 요일 1:9, 빌 3:9

I. 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다—시 89:14, 97:2

- A. 의는 하나님의 외적인 행동, 길, 행위, 활동들과 관련된다.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의롭다—계 15:3.
- B. 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엄격한 요구들에 따라 사람들과 사물들과 문제들에 있어서 옳은 것이다—마 5:20, 고전 15:34.
- C. 의는 하나님의 왕국의 문제이다—마 6:33.
  - 1. 의는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—시 89:14, 97:2, 사 32:1.
  - 2. 의는 하나님의 통치와 행정과 다스림과 관련된다.
- D. 의는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올바른 것이다—고후 5:21, 롬 3:21, 10:3-4.
  - 1.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올바른 것은 투명하고 수정처럼 맑은 내적 존재,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 안에 있는 내적 존재를 갖는 것이다—롬 12:2, 계 21:21.
  - 2. 이렇게 의로운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다—고후 5:21.

II.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핵심 단어는 1 장 17 절—“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.”—에 있다.

- A.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—롬 1:16-17.
- B.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것이고(요 3:16),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 요소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(엡 2:5, 8) 그러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 기반인 하나님의 의로 된 것이다(롬 1:17).
- C.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길이요 행적이다—시 103:6-7.
  - 1.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정과 원칙에 관한 것이므로 법리적인 것이다.
  - 2.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의 길에 따른 법리적인 것임을 가리킨다.
  - 3.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집행하시기 위한 요구를 이룬다.
  - 4.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(역동적이게) 하는 열쇠이다—롬 1:16-17.
  - 5. 그러므로 의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그 기초로서 계시되는데, 그 기초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로서 견고하고 견실하다—롬 1:17, 시 89:14.
  - 6. 로마서 3 장 24 절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됨을 말한다.
    - a. 하나님의 의로 법리적인 방식에 따라 의롭게 됨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방식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는 과정이다.
    - b.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됨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어 그들을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같이 만드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이다—비교 롬 5:10, 17-18, 21.
- D. 율법 준수자들은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 하지만(롬 9:31, 10:3), “율법의 행위로는 그분(하나님)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.”—롬 3:20.

- E.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하나님의 의의 기초 위에 있다—시 89:14.
1.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보좌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다—시 97:2.
  2.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심으로써 그분의 의를 나타내 보이신다—요일 1:9.
    - a.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실패로 인해 우리를 유죄판결 할 때,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초 위에서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—시 89:14, 97:2.
    - b.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의에 호소할 때마다,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으시다—요일 1:7.

**III.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한 의를 갖기를 원했다. 이 의는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이다—빌 3:9.**

- A. 자기 자신의 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를 갖는 것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했던 상태였다—빌 3:9, 비교 욥 1:1, 8, 2:3, 42:5.
1. 바울은 그 자신의 의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기를 원했다. 그리고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뛰어난 상태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다—빌 3:9; 1:20.
  2.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그의 의로 갖는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갈망했다—롬 5:21.
- B.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에게 의이신 것에는 두 방면이 있다.
1. 첫 번째 방면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의롭다 함을 받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의가 되시는 것이다—롬 3:24-26, 행 13:39, 갈 3:24 하, 27.
  2. 두 번째 방면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표현으로 살아 낸 의가 되시는 것이다. 하나님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주관적으로 의롭다 함을 얻도록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의이시다—롬 4:25, 벧전 2:24 상, 약 2:24, 마 5:20, 계 19:8.
  3. 이 두 방면은 누가복음 15 장 22 절과, 마태복음 22 장 11 절과 12 절에 예표되어 있다.
- C. 빌립보서 3 장 9 절에 있는 주관적인 의는 실지로 우리의 매일의 생활, 즉 하나님과 사람에게 올바른 생활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.
1. 바울은 그 자신의 의, 즉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 자신의 노력에서 나온 의 안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다—빌 3:6, 9.
  2. 우리 자신의 의는 우리 자신의 표현, 즉 우리 자신을 살아 낸 것이다.
  3. 바울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고,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뛰어난 상태에서 발견되기를 열망했다—비교 마 5:20.
  4.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의로운 생활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표현이 되신 하나님, 우리가 살아 낸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—고후 3:9, 계 19:7-8.